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유가 상승 · 반도체주 반등폭 축소..미국증시 하락

- 미국증시 '전강 후약'..주요 지수 사흘째 하락
- 미국-이란: 휴전 · 협상 기대 vs. 확전 우려
- 반도체주 반등폭 대체로 축소

Summary

미국증시 3거래일 연속 하락

7월 20일 월요일(현지시각) 미국 증시는 '전강 후약'의 흐름으로 주요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 하락권에 마감. 장 초반 중재국을 통한 미국과 이란 사이 열흘간의 휴전에 대한 기대가 전면에 등장했고 최근 급락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주요 종목군이 반등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음. 하지만 여전히 전쟁 관련 불확실성과 주요 원유 수송로를 둘러싼 잡음, 그리고 뒷심이 부족했던 반도체주 반등의 강도는 결국 장 후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59% 하락한 51,839.26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19% 하락한 7,443.28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한 25,508.07에 마감. 나스닥 100 지수는 0.04%, 소폭 상승권에 거래를 마쳤지만 중소형주 지수 러셀 2천 지수는 0.67% 하락을 기록. 변동성 지수 VIX는 0.64% 하락, 18.65에 거래를 마침.

(다우 -0.59%/ S&P500 -0.19%/ 나스닥 -0.05%/ 러셀2000 -0.67%)

섹터별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에너지, 정보 통신 섹터가 각각 0.7%, 0.5%, 0.1% 상승했고 이외 섹터는 모두 하락. 특히 헬스케어 섹터 낙폭이 1.15%로 가장 컸고 소재 업종도 0.94%, 산업재 섹터도 0.77% 비교적 큰 폭 하락함.

미국-이란: 휴전 · 협상 가능성?

이날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 사이 휴전을 위한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 이란 내 학생통신은, 핵심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을 재개하기 직전인 지난 9일 이전의 입장으로 되돌아가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함.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도 "일부 중재국의 아이디어가 테헤란에 전달됐다"고 밝힘. 로이터는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기존 양해각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열흘간의 휴전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역시 당국자를 인용해 "양측의 대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 일련의 소식들은 양측의 무력 공방 한편으로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 역시 중단되지는 않은 상태임을 시사.

미국-이란: 공습 지속..후티 "사우디 해상 봉쇄"

다만 이날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9일차' 공습을 종료한데 이어 '10일차' 공습에 들어간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장병이 한 명 숨질 때마다 이란은 그 몇 배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 이란 역시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에 위치한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음.

양측의 지속되고 있는 무력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움직임도 이날 시장 우려를 자극한 촉매가 됐음. 후티 반군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통항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나온 후티 반군의 사우디 대상 해상 봉쇄 선언은 실행될 경우 자칫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힐 가능성을 시사. 만일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힐 경우 현재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로 홍해를 거쳐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사우디산 원유 수출이 대부분 차단되며,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7% 가량이 줄어들게 됨. 이 경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타격이 1차로 예상되나 아시아 주요국이 막힌 중동산 에너지 수입 대신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경쟁적으로 확보하게 나설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동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음. 에너지 공급에의 타격 이외 해상 운송 전반의 차질 가능성도 커짐. 로이터는 실제 후티 반군의 사우디 해상 봉쇄 선언 이후 홍해를 통한 상품 운송 보험료가 이미 상승했다고 보도.

정리하면,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의 노력과 양측의 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이 상존하나 아직은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뿐 공식적인 진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과정에서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지 않음. 여기에 주요 해상 운송로의 추가 봉쇄 가능성까지 전면에 부상하고 있어 시장은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 이전까지 중동 관련 지정학 이슈에 보다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반도체주 반등: 뒷심이 부족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는 등 주요 반도체 종목군이 급락하며 시장 하락을 야기했던 바. 이번주 거래를 시작하는 월요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도체주 중심 반등이 초반 시장 반등을 이끌었음. 모건스탠리는 이날 DRAM 가격이 3분기, 전분기 대비 최소 25% 상승할 것이라며 메모리 부족은 내년, 내후년까지 보다 심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JP모건 역시 최근 반도체주 조정에 대해 장기 하락의 시작이 아닌 다음 상승 국면을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 다만 지난주 관련주 하락으로 이어졌던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만한 이슈는 등장하지 않아 반등에 힘을 보탬 요인이 다소 부족한 상황, 대부분 종목이 장 중 오름폭을 축소하거나 일부 하락 반전했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이날 장 중 3.5%까지 오름폭을 확대했으나 0.6%까지 상승폭을 축소해 마감. 결국 반도체주의 뒷심 있는 반등은 이번주 후반 알파벳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어질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 그를 통한 Capex 전망과 수익성 등을 확인한 이후에나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특징종목

반도체주 반등: 반등 폭은 제한적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고점 대비 20% 이상의 하락으로 기술적 약세 국면에 들어선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이날 4거래일만에 반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이어진 시장 하락을 초반 돌리는 역할. 다만 반등 강도를 더해줄 요인이 뚜렷하지 않아 장 후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를 반영하며 오름폭은 축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장 중 3.5%까지 확대했던 상승폭을 0.6%로 줄였으며 SK하이닉스 ADR(SKHY)(-1.86%)도 장 초반 6% 이상 상승했으나 2% 가까이 하락 마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95%)도 장 초반 오름폭을 6%대까지 확대했지만 상승폭은 거의 반납했으며 샌디스크(+2.67%)도 7% 이상 상승하다 절반 이하로 오름폭을 줄여 마감함. 웨스턴 디지털(+2.14%), 시게이트 테크놀로지(+1.88%), 인텔(+2.13%), 브로드컴(+1.98%) 등 주요 종목 모두 유사한 흐름.

퀄컴(-0.85%), 램 리서치(-2.09%), KLA(-2.42%),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0.75%), 델 테크놀로지스(-3.65%) 등은 하락 마감.

AMD(+1.57%)는 이날 자사의 GPU와 CPU, 네트워킹/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캐비닛에 통합해 탑재한 AI 랙 시스템 ‘헬리오스’를 마이크로소프트(+2.15%)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 공급한다고 밝힘. AMD의 헬리오스는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이나 ‘베라 루빈’의 경쟁 제품. AMD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헬리오스를 공급하게 되면서 AMD는 메타(-0.03%), 오픈AI, 오라클(-3.98%)에 이어 주요 클라우드 기업으로까지 고객층을 넓히게 됐음. 나아가 AMD의 시랙 헬리오스 공급 범위 확장은 현재 데이터센터 GPU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 AMD의 헬리오스는 가격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 다만 AI 텍스트 연산 단위인 토큰당 비용은 낮아 기업들이 헬리오스를 선택하게 될 유인이 있다는 시각. 다만 AMD 역시 장 중 5% 이상 올랐던 흐름을 마감까지 유지하지는 못함.

SMH(+0.41%), SOXQ(+0.61%), DRAM(+0.64%), SOXX(+0.45%), DISK(+0.15%) 등 주요 ETF 역시 제한된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

구글, 제미니용 AI 칩 개발 중

구글(알파벳A, +1.50%)이 자사 제미니 AI 모델의 요소를 하드웨어에 직접 탑재하는 새로운 서버용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디 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이는 AI 모델을 사용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설명으로 비공식적으로 ‘프로존 v2’라 불리는 신규칩이 탑재될 경우 AI 컴퓨팅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해당 칩은 오는 2028년 서버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

AMD(+1.57%)가 시랙 ‘헬리오스’를 마이크로소프트(+2.15%)에 탑재했다는 소식은 한편 엔비디아(+0.23%)의 굳건한 시장 지배력을 미약하게나마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읽혔으며 전일 엔비디아의 시총 1위 자리를 위협했던 애플(-2.14%)은 일본에서의 가격 인상 소식과 최근의 최고가 랠리에 대한 부담이 맞물려 비교적 큰 폭 하락.

테슬라(-2.96%)는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독일 기가팩토리에서의 생산량 확대 소식도 전해졌으나 낙폭 확대.

이외 특징주

로봇 수술 시스템 전문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2.24%)은 다빈치 시술의 미국 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전거래일 급락한 이후 이날 소폭 반등.

넷플릭스(-1.96%)는 현재 진행 분기 실적 가이드언스가 예상을 하회한데 따른 실망감을 이날도 반영했으며, 스페이스X(-3.34%)는 13번째 스타십 로켓 발사 시도가 지난주 또 다시 엔진 문제로 중단된 가운데 오는 23일 다음 발사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힘. 초반 반등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반락. 한편 스페이스X는 오는 8월 4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힘.

알리바바 그룹(+4.67%)은 새로운 AI 모델 쿼원 3.8맥스를 공개. 이 모델이 엔트로픽의 페이블5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모델이라고 설명.

골드만삭스는 어반 아웃피터스(+2.53%)에 대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낙관을 바탕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함.

블룸에너지(-8.33%)는 오라클(-3.98%)의 데이터센터용 가스 파이프라인 허가가 다시 불발에 그쳤다는 소식에 대형 프로젝트 지연 우려를 반영하며 낙폭 확대.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이란 무력 충돌 지속..국제유가 추가 상승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며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주 급등에 이어 추가 상승.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에 대한 9일차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오후 들어서는 10일차 공습을 진행한다고 밝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이 미군 한 명을 살해할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이란 역시 걸프 역내 요르단과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미국 우방국들을 잇달아 타격, 대응에 나섬. 여기에 이란의 우방 예멘 후티 반군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홍해에서의 해상 봉쇄를 선언해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즉 걸프 지역 양대 핵심 수송로가 모두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에 보다 가까워짐. 장 중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시사하며 유가는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인식에 결국 재반등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90% 상승한 배럴당 83.23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9월물은 1.27% 상승한 배럴당 89.22달러에 마감.

국제 금 가격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 우려를 반영해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소폭 하락. 은 가격은 1.32% 상승해 온스당 57달러를 회복.

국채 금리 장기물 중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전 만기물에서 상승. 앤디 버넌 신임 영국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기존 재정 준칙을 준수하겠지만 그 안에서 허용되는 유연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정 지출 확대 우려를 자극, 영국 국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는 미 국채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침.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충돌 격화로 주요 원유 수송로가 추가로 막히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미 국채 금리 상승의 근거가 됨.

2년물 국채 금리는 3.0bp 상승한 4.2063%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4bp 상승한 4.5971%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도 4.4bp 상승한 5.1125%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는 연준이 다음주로 예정된 이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16.5% 내외로 전장 대비 소폭 높여 반영. 오는 9월 회의에서 인상할 가능성도 60% 초반대로 역시 전장 대비 상승.

유가 상승에 달러도 강세

미국 달러화 가치는 국제유가와 맞물려 상승. 초반 미국과 이란의 열흘간의 휴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하락하기도 했던 달러는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홍해에서의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나서며 국제유가가 상승권에서의 움직임을 굳히자 상승세로 전환. 영국 신임 총리가 재정에서의 유연성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하자 파운드화는 재정 지출 확대 우려를 반영해 하락, 이 역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 중 101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며 전장 대비 0.19% 상승, 100.954를 기록. 파운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73% 하락한 1.34351달러를 기록.

전일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닷새 연속 하락하며 1,478.4원에 마감, 2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달러-원 환율은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90원)를 감안시 2.30원 하락한 1,475.2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